

“광주·전남 특수학교 보조인력 시급”

■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고등학교 보건실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1학년생 A(16)양이 숨져있는 것을 보건교사와 A양 어머니가 함께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A양은 이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체험학습 대신, 보건실에 누워있었는데 부모가 찾아와 깨워보니 숨져 있었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광주일보 4월 1일 6면>

■ 지난 4월 6일 오전 8시께 모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2학년생 B(9)군이 의식을 잃은 것을 학교 관계자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여태껏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잇단 장애학생 사고 조사 통학보조원·심장제세동기 부족 등 지적

광주시의회가 지난날 28일 교육위원회에 상정,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 등을 논의했던 '장애인 사고 관련 보고' 안건은 미흡한 광주 장애인 교육 환경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단체 등은 올해 국내 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123조 4000억원에 달하는 '복지 100조'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제도의 빈틈이 만들어낸 장애인 교육 복지의 허술함을 확인할 수 있는 풍경이라고 꼬집는다.

문상필·유정심 시의원 등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족한 장애인 교육의 사각 지대를 살펴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과 괴리된 획일적 규정=교육계

안팎에서는 광주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장애 학생 활동 보조 인력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장애인 18명이 탑승, 등교중이었지만 이들을 살필 통학보조원은 한 명 뿐이었다. 학생들 대부분이 한 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로 주의깊게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1명에게 맡긴 것은 지나치게 소홀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통학 차량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전남의 경우 여수여명·순천선해·목포인성·덕수·소림·은광·함평영화·나주이화학교 등 8개 특수학교의 통학 차량 24대에 한 명씩 차량 보조원을 두도록 했고 광주도 3개 학교(선광·선광·선우) 통학차량 20대를 운영하면서 20명의 보조원을 배치시켜 장애학생들을 돕고 있다. 사립인 은혜학교도 8대 통학버스에 한 명씩 보조원을 태우고 있다.

학교별로 통학버스에 타는 장애 학생이 10~20명에 이르는 점, 이들 대부분이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명의 통학보조원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1대당 1명'이라는 규정은 재정 형편 등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다.

◇거들어들 특수교육실무사 절실한데...=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유치원을 비롯,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228명의 특수교육실무사를 두고 담당 교사와 함께 장애학생들의 수업과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전남교육청도 246명의 실무사를 특수학교와 일반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치해 장애 학생들이 수업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장애학생 수에 견줘 특수교육실무사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학생, 교사, 현장 실무사들 모두에게 불만의 원인으로 지

목받고 있는 현실이다.

은혜학교만 해도 32개 학급에 170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실무사는 고작 21명에 불과하다. 순천선해학교는 241명의 학생에도 담임을 도울 실무사는 10명 뿐이고 목포인성학교는 123명의 학생들을 4명의 실무사가 살피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 단체 등은 예산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현장 실정을 감안해 능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고 있다.

◇심장제세동기도 부족=장애학생들 뿐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할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대비해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는 심장제세동기도 부족하다.

광주의 경우 전체 330개교 중 227개교에서 239대(68.8%)가 비치돼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대당 200만원이 넘어 학교측이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일반고도 제세동기를 비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전체 829개교에서 492대만 설치돼 자칫 응급 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문상필 시의원은 "특별시·광역시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보조인력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광주지역 특수학교 보조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장애인들의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조선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캐릭터 작품. (조선대 제공)

담양 대나무축제서 조선대 작품 만나요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전시

조선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가 담양 대나무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대학 만화 애니메이션학과는 3일부터 30일까지 담양 종합운동장 인근 담빛갤러리에서 ▲애니메이션 작품 전시 ▲체험 프로그램 ▲4간 만화 그리기 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학생들의 만화·일러스트 작품을 살펴볼 수 있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가족용 단편애니메이션 15편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주말과 휴일의 경우 스포츠선 촬영뿐 아니라 소마르토프·페타키스토스 코프 애니메이션 등도 체험해볼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올 대학 평균 등록금 상승 이유 보니

“인문계 정원 줄고 공학계 늘었기 때문”

사이트 '대학알리미' 공개

올해 광주·전남 4년제 대학들의 등록금은 얼마나 될까.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myinfo.go.kr)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4년제 일반대학을 비롯, 180개교의 등록금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국·공립대인 전남대의 올 평균 연간 등록금은 412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411만 5000원이었다.

목포대는 389만 3000원(2015년 389만 1000원), 순천대 394만 2000원(“ 393만 9000원)을 비롯, 광주대 647만 5000원, 남부대 649만원, 조선대 681만 1000원, 동신대 655만 5000원, 호남대 645만 7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연간 등록금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대 의대 의학과는 경우 연간 등록금이 625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조선대 의예과(1~2학년) 연간 평균 등록금은 1034만 2000원.

조선대는 자연과학계열 연간 평균 등록금은 743만원이며 치과대학은 올 해 1학년이 1032만원의 등록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신대 한의과대학 1~2학년 학생들은 연간 평균 852만원의 등록금을 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보공시 항목을 분석한 결과, 178개 학교가 등록금을 인하시키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2개교에 그쳤는데 평균등록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 “대학구조개혁 등으로 대학 정원이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정원의 비중이 줄고 자연과학과 공학계열 학생정원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

(단위:원)	2015년	2016년
광주교대	347만6000	347만6000
광주대	647만6000	647만5000
광주여대	625만9000	626만4000
남부대	648만6000	649만
동신대	655만7000	655만5000
목포대	389만1000	389만3000
순천대	393만9000	394만2000
전남대	411만5000	412만 7000
조선대	677만6000	681만1000
호남대	645만8000	645만7000

로스쿨 전형 부모 신상 기재

교육부, 전남대 경고 조치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전형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가 그동안의 관심과 기대 수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000여건의 입학전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합격자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했다. 이들은 시장·법무법인 대표·공단 이사장·지방법원장의 자녀와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조카였다.

교육부는 지원자가 입시 요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북대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에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기관 경고하기로 했다.

전남대와 영남대는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적도록 해 경고와 함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25개 모든 로스쿨에는 자기소개서에서 부모 등의 이름과 신상 등의 기재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현책으로 나누는 온정

조선대 중앙도서관이 최근 도서관 주간을 맞아 마련한 '북 플라마켓'. 대학 독서토론클럽 20개팀 등이 참여, 현책을 기부하거나 교환, 판매하는 행사로 수익금은 지역 불우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조선대 제공>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661㎡ (200평) 건축: 495㎡ (150평)
연면적: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폭적임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원하시면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적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우선하여 드립니다.